



미 증시,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6 거래일만에 반등

미국 증시 리뷰

8일(목) 미국 증시는 FOMC를 앞두고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낙폭과대 인식 및 저가매수세 유입되며 6 거래일만에 반등 (다우 +0.55%, S&P500 +0.75%, 나스닥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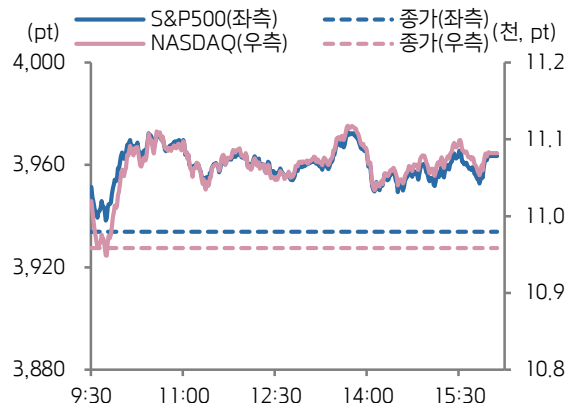
중국이 방역 조치를 빠르게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6개월간 중국 경제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 중국이 일상 회복에 돌입하게 되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 등 중국 내 경제가 살아나면 수입 급증 및 공급망 차질을 초래하며 내년 물가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3 만건(예상 23 만건, 전주 22.5 만건) 기록하며 예상치 부합. 2 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67 만건으로 예상치 161.8 만건을 상회하며 지난 2 월 이후 최고치, 두 달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며 고용시장 과열이 식어가고 있고 향후 경기침체 가능성을 예상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 제기.

업종별로 IT(+1.6%), 경기소비재(+1%), 헬스케어(+0.9%) 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통신(-0.5%), 에너지(-0.5%), 금융(+0.2%) 업종이 약세를 보임. 에너지 업종은 경기침체로 인한 원유 수요 부진 우려로 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엑손모빌(0.74%)은 자사주 매입 규모를 300 억 달러에서 500 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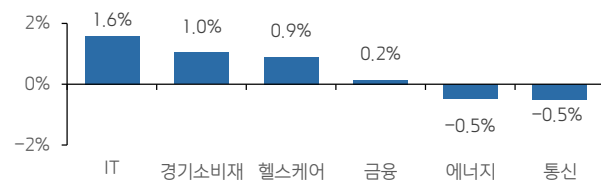
나스닥이 반등한 가운데, 테슬라(-0.34%)는 상하이 공장의 교대 근무 시간을 단축했다는 보도로 인한 전기차 수요 부진 우려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 자금 대출에 따른 높은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트위터 주식을 담보로 신용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 등으로 약세 지속. 마이크로소프트(1.24%)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상승. 엔비디아(6.51%), 마이크론(2.56%), AMD(0.47%), AMAT(2.36%) 등 주요 반도체 관련주 역시 반등에 성공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7% 상승.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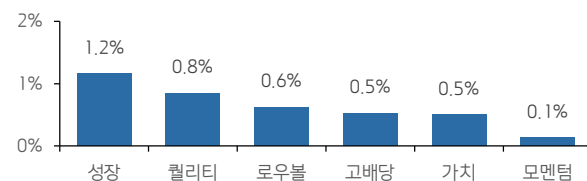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963.51	+0.75%	USD/KRW	1,317.65	-0.34%
NASDAQ	11,082.00	+1.13%	달러 지수	104.80	-0.28%
다우	33,781.48	+0.55%	EUR/USD	1.06	+0.47%
VIX	22.29	-1.72%	USD/CNH	6.96	+0.01%
러셀 2000	1,818.29	+0.63%	USD/JPY	136.68	+0.04%
필라. 반도체	2,744.73	+2.67%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809.74	+0.3%	국고채 3년	3.682	+0.4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534	+0.4bp
Eurostoxx50	3,921.27	+0.01%	미국 국채 2년	4.310	+5.4bp
MSCI 전세계 지수	616.22	-0.42%	미국 국채 10년	3.486	+6.9bp
MSCI DM 지수	2,654.34	-0.29%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58.77	-1.46%	WTI	71.84	-0.24%
MSCI 한국 ETF	57.62	+0.4%	금	1801.4	+0.19%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21%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5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6.3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등 미국 증시 반등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소화 후 외국인 수급 변화
3. 중국 11월 생산자물가 결과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12월 이후 한국, 미국 등 주요국 증시는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는 상황. 코스피(200 주선), S&P500(200 주선), 나스닥(20 주선) 등 주요 벤치마크 지수들이 중장기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기술적인 매도 물량을 자극하고 있는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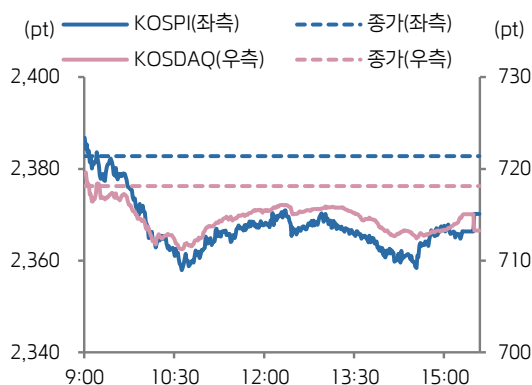
펀더멘털 상 신규 모멘텀이나 차트 상 저항선 돌파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며, 차주 예정된 11월 CPI와 12월 FOMC 이벤트를 거치면서 재료 확보가 가능할 것. 일단 11월 미 CPI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향되면서 7.3%(YoY, 10월 7.7%)까지 내려왔으며, 유가 등 에너지 가격들의 11월 중 반등 제한, 실물 수요 위축 등이 컨센하향을 이끌어낸 것으로 판단.

시장은 데이터의 실제적인 변화보다는 그 데이터가 예상과 기대에 비해 얼마나 다르냐에 반응하는 성격이 더 짙은 만큼, CPI 둔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증시에 악재가 되는 것은 사실. 또 중국의 본격적인 리오프닝 속도 확대에 의한 이들의 소비 및 수입 수요 증가는 전세계 경기 둔화를 완충시킬 수 있는 요인이나, 동시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딜레마를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보임.

다만, 시장에서도 이를 주가에 반영해 가면서 경계심리를 높이고 있기에, CPI 발 주가 쇼크가 일어나기 보다는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베이스로 상정할 필요. 따라서, 차주 대형 이벤트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과도한 포지션 축소(or 방향성) 베팅은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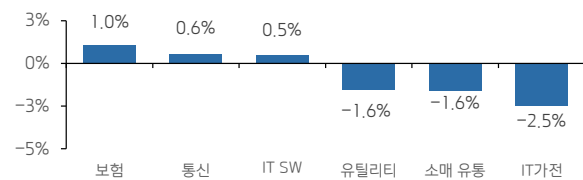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발 수급 변동성 확대 속 미국 침체 불안, 중국 리오프닝 주들의 차익 실현 물량 등으로 하락 마감(코스피 -0.5%, 코스닥 -0.8%). 금일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2.7%), 애플(+1.2%), 아마존(+2.1%) 등 미국 빅테크주 강세 효과 속 금주 중 단기 조정에 따른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전망.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단기 수급에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양호한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장중에는 중국의 11월 PPI(컨센 -1.4%YoY) 결과에 따라, 미 CPI 보다 먼저 발표되는 미 PPI(금일 밤 발표 예정)를 둘러싼 경계심리가 국내 증시에 유입될 지 여부도 관련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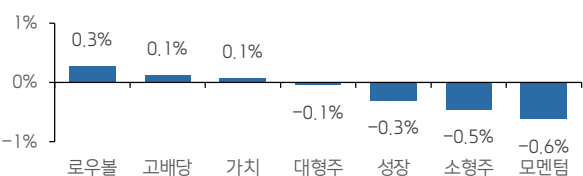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